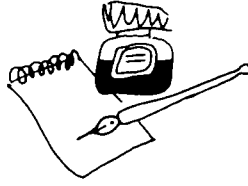


편집 후기



지방에 내려가는 고속버스칸에서 옆자리 청년이 건네준 커피를 아주 고맙게 받아마신 한 아주머니가 커피속에 숨어 있던 수면제로 인해 결국 가진 돈을 다 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 상심치못한 기억속에 한국타이어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기차칸에서 옆자리 아주머니가 건네준 껌을 고맙게는 받았으나 내내 손에 쥐고만 있었을 뿐 씹질 못했다. 참 부끄러운 기억이다.

옆자리를 함께 했다는 단순하면서 질긴 인연에 혼자씹기 미안하다는 예쁜 마음씨를 가진 그 아주머니의 호의를 나는 되지도 못한 걱정으로 잠간 동안 악의와 혼동한 것이다. 유행가 가사처럼 '도화지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한 세상'이 이 더위 끝에 기다리고 있다면 더위도 덤지 않을텐데. <韓>

매주말이면 거의 비가 내려 모처럼의 휴일을 망치는가 하면,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렇듯 기상 현상은 생활의 리듬은 물론이고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긴장마와 많은 강우량을 예보하고 있어 풍수재를 중심으로 여름호의 특집을 꾸며 보았다. 또한 표지를 바꿔 변화를 주었고, 내용 면에서도 궁금한 것, 알고지내야 할 것, 알려야 할 것 등 독자의 욕구에 좀더 접근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쉬움에 다음호를 기약해 본다.

옥고를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독자제원에 감사드리며 올여름 부디 건강하시길 기원한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분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콩트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防災와保險 1990 / 여름호 <통권 제46호> 계간 · 비매품

등록 / 바-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 / 1990년 7월 1일
인쇄 / 1990년 6월 25일
발행겸 편집인 / 이상규
인쇄인 / 성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창미문화사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0-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의 내용은 당 협회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